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 연구*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와카 번역사적 위치-

박 상 현**

(e-mail: koreaswiss@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translation of *Sakimorinouta*(防人歌) in a syntactic manner. The translations of *Sakimorinouta* relea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clude *Sakimorinouta* (translated by Seo Doo-soo), Korean abridged translations of Manyoshu(万葉集) and One Hundred Patriotic Poems in Korean Translation (by Kim Eok). The translations published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include Manyoshu in Korean Translation (Kim Sa-yeop), Manyoshu (Koo Chung-ho) and Recitation of One Thousand Lines of Manyoshu (Koh Yong-hwan, Kang Yong-ja).

A comparative study on these translations revealed the position of *Sakimorinouta* in the translation history of waka(和歌). First, Seo Doo-soo's text w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Sakimorinouta*. Second, Seo Doo-soo's *Sakimorinouta* was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waka. Third, he added notes to this waka for the first time in the translation history of waka since the modern times. In fact, he expressed his view on this waka and how it should be introduced to Joseon through the notes.

key words : Seo Doo-soo, Colonial Period, Waka, *Sakimorinouta*, Position in Translation History

* 이 논문(도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A5B8066696)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1. 머리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 『만엽집(萬葉集)』(약 7, 8세기경 성립)에는 ‘병사의 노래(防人歌)’¹⁾가 실려 있다. 이것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 전 곧 나·당 연합군 대(對) 백제 부흥군·왜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주로 창작된 와카(和歌)²⁾라는 점에서 흥미롭다.³⁾

그런데 우리의 흥미를 더욱 끄는 것은 이 ‘병사의 노래’가 식민지 시기에 우리말로 번역됐다는 사실이다. 번역자는 서두수였다. 그는 조선인으로서로는 최초로 경성제국대학에 설치되어 있던 당시의 ‘국어학·국문학 강좌’ 곧 ‘일어학·일문학 강좌’에서 수학한 인물이다. 전(前)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서남표의 부친이기도 하다. 그런 그는 대동아전쟁⁴⁾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만엽집』에서 ‘병사의 노래’만을 골라 조선어로 옮겨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⁵⁾ 이식」(이하,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로 약칭)이 그것이다. 총 98수(首)의 와카가 ‘일본어 원문-조선어 번역문’ 곧 대역(對訳)으로 소개되어 있다. 권20에 게재되어 있는 93수의 ‘병사의 노래’에 권14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 5수를 더한 것이다. 권20에 수록된 병사의 노래는 755년에 제작된 ‘병사의 노래’ 84수와 ‘오른쪽 8수는 옛 병사의 노래다’라는 좌주(左注)를 둔 4425~4432번 와카 및 ‘옛날에 교체한 병사의 노래 1수’라는 제사(題詞)를 가진 4436번 와카로 구성되어 있고, 권14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는 3567~3571번 와카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 시인이자 번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억도 식민지 시기에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옮겼다. 그는 「만엽집초역(萬葉集鈔訳)」과 「선역애국백인일수(鮮訳愛國百人一首)」를 통해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⁶⁾로 번역·소개했다. 「만엽집초역」은 김억이 1943년 7월 28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만엽집』을 발췌·번역하여 『매일신보』에 발표한 것이고, 「선역애국백인일수」는 같은 해 7월 2일부터 『만엽집』의 와카뿐만이 아니라 에도(江戸)시대 가인(歌人)의 와카까지 들어 있는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라는 내지(内地) 곧 일본에서 발행된 와카집(和歌集)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같은 신문에 연이어 게재했던 것

1) 일본어로는 ‘SAKIMORINOUTA(さきもりのうた)’ 혹은 ‘SAKIMORIKI(さきもりか)’라고 부른다.

2) 5음(音)·7음·5음·7음·7음으로 구성된 일본의 정형시.

3) 『만엽집』 권20에 수록된 ‘병사의 노래’가 그렇다.

박상현(2009) 『해석의 정치학』 제이앤씨, 16쪽

4) ‘태평양전쟁’이라고도 한다. 태평양의 주도권을 다툰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동아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 전쟁의 허구성과 침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5) ‘치졸한’이란 서두수가 자신의 번역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6) 역사적인 개념이기에 식민지 시기의 우리말은 ‘조선어’로, 광복 후에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이다. 전자에는 총 60수의 와카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수가, 후자에는 총 100수의 와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수가 각각 ‘병사의 노래’였다.

광복 후에도 ‘병사의 노래’는 한국어로 옮겨졌다. 김사엽의 『한역만엽집-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이하, 『한역만엽집』. 제1권 1984년, 제2권 1985년, 제3권 1987년, 제4권 1991년), 구정호의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2002년), 고용환·강용자의 『만엽집 천줄읽기』(2009년)를 통해 ‘병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번역·소개되었다.⁷⁾ 『한역만엽집』에는 ‘병사의 노래’가 2수,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에는 4수, 『만엽집 천줄읽기』에는 1수가 각각 번역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병사의 노래’는 식민지 시기와 광복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말로 옮겨졌다. 와카 가운데 어떤 특정한 와카군(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말로 옮겨진 사례는 근현대 와카 번역사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본고에서는 ‘병사의 노래’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번역했던 서두수의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를 고찰하여 비교의 관점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와카 번역사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의 체재

앞서 언급했듯이 서두수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만엽집』에서 ‘병사의 노래’만을 골라 우리말로 옮긴 후, 그것을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그는 11월 2일과 3일까지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만엽집』과 ‘병사의 노래’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후, 와카의 장단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살려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는 것과 그의 번역 의도를 비교적 명확히 말했다. 신문이라는 지면의 제약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내용에 상당한 분량을 배정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점이다.⁸⁾

그는 11월 2일에 『만엽집』에 대해

7) 『만엽집』을 발췌·번역하기는 했지만 박상현(2006, 2008)의 『천년의 연가:만엽집』과 『일본인의 사랑의 문화사:만엽집』에는 ‘병사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연숙은 『만엽집』 완역을 목표로 2012년부터 『만엽집』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병사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권14와 권20까지는 아직 번역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번역서를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만엽집』 입문서나 연구서에는 ‘병사의 노래’가 몇 수씩 소개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살펴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오로지 『만엽집』을 우리말로 옮긴 텍스트만 고찰한다. 연구 대상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8) 후에 자세히 언급하지만 김억도 ‘병사의 노래’를 포함한 와카를 『매일신보』에 발표했지만 『만엽집』에 대해서도, ‘병사의 노래’에 대해서도, 번역 방식에 대해서도, 번역 의도에 대해서도 서두수와 같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皇紀一四一九年을 마지막 採録歌로해約四百五十年동안에 걸친歌集 위로는 天皇皇后로부터 알로는 草莽男女에 이르는 數업는사람의노래를 오직 한결가튼 無雜한信念으로 採録한 四千五百可握되는 万葉集스무卷은어찌튼 한驚異의 宝物일듯 녀여진다⁹⁾

고 소개한다.

여기서 서두수는 『만엽집』에 수록된 마지막 와카가 언제 창작된 것인지, 『만엽집』에 실려 있는 와카가 얼마 동안 채록된 것인지, 가인이 어떤 계급이었는지, 『만엽집』에는 총 몇 수의 와카가 게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엽집』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위 인용문 바로 뒤에는 ‘병사의 노래’에 대한 그의 서술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령 있게 적고 있다.

이 가운데서 주상 그卷二十卷에 万葉集의 마지막集成者로는 적어도 겨누어져있는 大伴家持가 実進家百六十六首中에서 七十二首를 빼버리고 採録한防人(さきもり)의 노래를 이에 問題로하여본셈이다¹⁰⁾

그는 여기서 ‘병사의 노래’가 『만엽집』 몇 권에 수록되어 있는지, 『만엽집』의 최종적인 편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병사의 노래’가 원래 몇 수였는데, 최종 편찬자로 추정되는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이 가운데 몇 수를 제외했는지에 대해 말한다.

그는 위 인용문에 이어 와카의 장단 리듬인 5음·7음·5음·7음·7음을 살려서 와카를 번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말할나위도업게스리 이防人歌를 形成한形式이 조선詩歌의形式과 규격에맞지안흔곳에 첫제로 부질업는 어린짓을 하게된原因이잇섯다-면弁明갓지만 卽五七五七七이란 短歌形式이 和歌의典型임은 再言할것까지도 못되는일이다그러한것을 偶數言數와 偶數句數가 普通인조선詩歌의틀에 흉내로나마옴겨실자니 무뉜感覺과둔한才分으로 어찌勘當될일까저어하기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어찌튼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싸히 그려보게한것이 이제실으라는 拙訳이다¹¹⁾

9) 『매일신보』 (1942.11.2)

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원문 그대로. 이하 같음.

10) 위의 신문

11) 위의 신문

여기서 그는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기 어려운 것은 그것의 형식과 조선 시가(詩歌)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위 인용문에 대해 선행연구는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 곧 5·7·5·7·7이라는 형식까지도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고 싶었기 때문에 낯설기는 하지만 와카의 형식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옮겼다고 지적했다.¹²⁾

계속해서 서두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번역한 ‘병사의 노래’가 『만엽집』 권 20과 권14에 실려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한다.

卷二十에잇는 防人歌를주장함이다 卷十四에 防人歌라題標하고 잇는 다섯首는 末尾에부처역노라¹³⁾

이어서 그는 ‘병사(防人)’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두수가 ‘병사’와 ‘병사의 노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다¹⁴⁾는 것을 잘 보여 주기에 인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대로 옮긴다.

大抵이 『防人歌』란 무엇인가 먼저防人(サキモリ)란무엇인가 説明할것도업시 『崎守』이다 即 바닷가邊方을직히는 軍士를말함이다 지금九州北쪽인筑紫(ツタシ)를직히는壯丁이니 이들은대개 東쪽되는遠江 相模 駿河 上総 常陸 下野 下総 上野 武蔵等十個團(地方)의壯丁이 불리워 언제나만다시 그러하였다는것은 못되나 大概三年式해서交替되었섯다 그래서 各国에 部領使(コトリヅカヒ)라는것이잇서서 이部領使가引率하여 難波(ナニハ) 即 只今の大阪에나온後 兵部省官吏에게引繼(?)¹⁵⁾되어海路로 『筑紫』에가잇게되는것이다¹⁶⁾

위 인용문에서 서두수는 ‘병사’의 역할, ‘병사’의 출신지, 그들의 근무 기간, 근무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들의 노래인 ‘병사의 노래’에 담겨 있는 순정은 일본 민족의 옛 자태이며 진정한 일본심이라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12)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31쪽

13) 위의 신문

14) 서두수가 『만엽집』에 수록되어 있는 ‘병사의 노래’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성제대 예과와 본과에 재학하면서 그것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글이 참고가 된다.

박상현(2012) 「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 『만엽집』 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문화학보』 제5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133-138쪽

15) 원문 그대로

16) 위의 신문

『防人歌』란 그러므로 이러한사람들이지은 노래이니 別다른教養도 업시된 터로 自己를 表白한짜위의것이며 이에담긴純正이야 정말日本民族의 피에넘쳐 흘러온 옛姿態가아닐까한다 (중략) 이에서(98수의 ‘병사의 노래’를 가리킴. 인용자) 별서우리는 『真正한』-짜정真正한 『日本心』의血脈을 予想할수잇슴을말 하려한다¹⁷⁾

다음으로 11월 3일에도 ‘병사의 노래’에 대한 기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인용했던 인용문에 나오는 ‘진정한 일본심’이 결국에는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서두수는 이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고자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옮겼던 것이다.¹⁸⁾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병사의 노래’에는 병사의 ‘진정한 일본심’도 보이지만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그들의 심정도 있다는 점을 서두수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병사의 노래’의 본질이 아니고 충군애국(忠君愛國)이 본질이라고 규정해버린다는 사실이다.¹⁹⁾ 이와 같은 그의 ‘병사의 노래관’이 잘 보이는 대목이 있다. 좀 길지만 중요하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數로짜진다면 말할수업시 엄청난比例로 父母그중에도 어머니 十七首쯤은 안해와離別하기서러운 表懷를 『아모런숨김업시』 노래하고있다 나는 이 『아모런숨김업시』 사람을산 그들精神속에 真正한忠君과 愛國의精神이오히려 保藏되어잇슴을 요지음 『防人精神』을 말하는이들에게 보여서는아니될것일까 (중략) 嚴肅과同時에 親愛를얼핏해서는 서로同在하기어렵게보이는面을 同時에나타낼수잇는 即事的인모습을防人에본다 노래에서본다면 『大君のみことかしこみ』 하면서 안타깝게 『父母不置きて』 던가 『我ぬとりつきて言ひし子なほも』 라고 父母妻子를말하는 一見相尅하는矛盾을 넘어서 웃는얼굴로 君國을직혀 죽음을돌보지 않는 그由因을 나는그들의真正한率直 虛偽업는明朗에 차즐것이라고본다 (중략) 이구김살업는마음(가족과의 이별을 가슴 아파하는 병사의 마음. 인용자)이 이 亦記念한 語感으로 험박담은 『大君』 『わが大君』 니하는聖上을 우르러一死忠君을能히한다 純情이殉情을이룬다 正直한嗚咽이 偉大한慟哭을이룬다 그리하여이에는 오직더러 퍼지지안는피의脈動이同一하여서이다 이同調的인 皮의論理-이것이 바야흐로 防人精神이며 真正한日本心이다²⁰⁾

17) 위의 신문

18) 박상현(2011) 앞의 논문(「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씨 모리노우다):치출한 이식」을 중심으로」), 231-232쪽

19) 위의 논문, 232쪽

20) 『매일신보』(1942.11.3)

이와 같이 서두수는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만엽집』 과 ‘병사의 노래’ 등을 서술한 후, “次女一週忌 諷歌淨書”라고 밝히고 있다. 차녀의 1주기를 맞아 써했다는 말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가 서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²¹⁾

이후 권20·4321번 와카로 시작하는 총 98수의 ‘병사의 노래’에 대한 서두수 번역이 이어진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권20·4321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草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잠드리 지어밀쩌나고서

(後記) 惶恐히聖上の부르심을 저어하는 心隈는 그양그테로의恐怖는아이아니다 속임업는 順從임에속임업는 구김살업는 実吐情이다 안헤를쩌나는안타까움을 天然하게보이고잇슴이 오히려 얼마나아름다운지 相廻하는 두感情을 무서워함 업시보이는이곳에 天皇에 처한真正한 親愛感을엿볼수있다 진실로어버이에 처한듯한 그것이 담겨있다²²⁾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²³⁾ 중요한 곳인데도 말이다. 서두수는 와카를 ‘일본어 원문-조선어 번역문’ 곧 대역한 후, 거의 모든 ‘병사의 노래’에 ‘후기(後記)’를 붙였다. 그는 98수의 ‘병사의 노래’ 가운데 84수에 ‘후기’ 곧 ‘주석(註釈)’을 달았다. 그 비율이 약 86%에 달한다. ‘후기’가 붙어 있지 않는 와카는 14수로 권20의 4340, 4349, 4381, 4402, 4405, 4420, 4422, 4423, 4426, 4428번 와카와 권14의 3567, 3569, 3570, 3571번 와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왜 ‘병사의 노래’ 에 붙어 있는 ‘후기’ 곧 ‘주석’에 주목해야 할까? 그것은 ‘후기’를 통해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후기’는 독자들이 ‘병사의 노래’를 ‘서두수식(式)’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 사항이었던 것이다.

방금 인용한 권20·4321번의 와카를 통해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와카의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畏きや 命被

21)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1주기 기일에 거짓말을 하겠는가?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병사의 노래’에 관한 서두수의 언급 곧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은 모두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22) 위의 신문. 강조 표시는 인용자. 이하 같음.

23) 유일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세한 인용은 후술한다.

박상현(2012),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의 정체성 연구-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관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55-271쪽

리)’에는 천황의 칙명을 받드는 병사의 마음이,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잠드리 지어밀쳐나고서(明日ゆりや 草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에는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병사의 심정이 각각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서두수도 ‘후기’에서 이것을 두고 ‘相廻하는 두感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는 이와카에서 병사의 ‘天皇에 처한真正한 親愛感’을 읽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와카에 대한 서두수의 이해이며, 그의 ‘병사의 노래관’이도 하다.²⁴⁾ 이와 같은 서두수의 해석을 엿볼 수 있는 ‘후기’는 얼마든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20·4328

大君の命かしこみ磯に触り海原渡る父母を置きて

우리聖上 그말삼惶恐코야 기속지나며 바다별판건너가오 어버이남겨두고

(後記)原歌는익히알려진노래이다 『父母を置きて』와 『大君の命かしこみ』는서로어긋나는양보일지나 어긋나는感情이야 짜정眞実이다 그리고이眞実이그들을크게힘있게하고있다 속임업는感情이 속임업는忠誠을가져오는 防人の상樣姿를눈앞에그리라²⁵⁾

결국 서두수는 이 와카를 접하는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이 자기처럼 ‘병사의 노래’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읊은 와카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사키 히사시(身崎寿)는 ‘병사의 노래’를 서두수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는 위에서 인용한 권20·4321번 와카를 포함한 천황에 대한 충정을 다짐하는 듯한 ‘병사의 노래’²⁶⁾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천황의 명대로(大君の命畏み)’와 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해도 1수 전체가 언명(言立て)적인 말(言辭)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과는 대치하듯이 ‘사랑하는 이도 없이(妹なしにして)’라든지 ‘부모님을 남겨두고(父母を置きて)’라는 이별을 슬퍼하는 말(悲別的言辭)이 놓여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²⁷⁾

24) 위의 논문. 257-262쪽

25) 『매일신보』 (1942.11.4)

26) 권20·4321, 4328, 4358, 4373, 4393, 4394, 4403, 4414번 와카가 그것이다.

27) 반면에 서두수는 이들 ‘병사의 노래’를 근거로 ‘모든 ‘병사의 노래’를 “병사들이 일편단심으로 충군과 예국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결론짓는다.

身崎寿(1973) 「防人歌試論」 『万葉』, 万葉学会. 22頁

서두수(1942) 「防人のころ: 名作研究」 『国民文学』, 인문사. 50쪽

고 지적한다. 그리고는 서두수와는 달리 ‘병사의 노래’의 본질을 ‘이별가(悲別歌)’로 규정했다. 곧 그는 ‘병사의 노래’에 보이는 상반되는 병사의 심정 가운데 이별의 슬픔에 무게를 두어 ‘병사의 노래’를 해석했던 것이다.

한편 마스다 카쓰미(益田勝実)는 ‘병사의 노래’에서 강압적인 징집에 대한 고발을, 강제 징집에 대한 기피를, 가정의 실정을 무시하여 소집하는 현실을 각각 읽어낸다. 즉,

권20 · 4343²⁸⁾

내사나그네 나그네이오만 내고향남어 자식근심여원님 생각사록설웨라²⁹⁾

권20 · 4364

邊防직이떠나려 허둥지둥 지어미사롤일 내지어미사롤일 말못한양왔고야³⁰⁾

에서는 ‘강압적인 징집’³¹⁾을,

권20 · 4376

나그넷길떠나올줄 전혀몰라 어마아바께 하직말삼채못해 이제토록서러워³²⁾

권20 · 4382

大將두어룬 몸슬양반이로다 토사곽난배 알코누어잇슬제 邊防직이란무삼고³³⁾

에서는 ‘(징집에 대한) 기피 사상’³⁴⁾을

권20 · 4401

어허웃자락 이웃자락매달려 우는자식들 남겨두고예왔다 어미조차여인것을³⁵⁾

에서는 ‘가족의 실정을 무시하여 징집·소집하는 현실’을 각각 읽어내고 있다.³⁶⁾

결국 ‘병사의 노래’에는 천황에 충성을 다짐하는 듯한 와카, 가족과의 이별을 가슴 아파하는 와카, 강압적인 징집 등에 저항하는 와카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와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격을 가

28) 우리말 번역은 서두수역을 차용했다. 이하 같음.

29) 我ろ旅は 旅と思ほど 家にして 子持ち瘦すらむ 我が妻かなしも

30) 忘らむて 野行き山行き 我来れど 我が父母は 忘れせぬかも

31) 益田勝実(1952) 「防人等」 『万葉』, 万葉学会. 39頁

32) 旅行きに 行くと知らずて 母父に 言申さずて 今ぞ悔しけ

33) 布多富我美 悪しけ人なり あたゆまひ 我がする時に 防人に差す

34) 益田勝実 앞의 논문. 39쪽

35) 韓衣 裾に取り付き 泣く子らを 置きてそ來ぬや 母なしにして

36) 益田勝実 앞의 논문. 39쪽

지고 있는 ‘병사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대동아전쟁기와 전후(戰後) 민주주의 시기라는 상황에서 그것을 ‘병사의 노래’의 본질 혹은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성격의 ‘병사의 노래’를 배제해 버렸다. ‘선택과 배제’가 작동했던 것이다.³⁷⁾

3. ‘후기’라는 항목의 차별성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서두수는 ‘병사의 노래’를 우리말로 대역하면서, 거의 모든 와카에 ‘후기’를 붙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후기’는 곧 ‘주석’이며, 이것은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독자들이 ‘병사의 노래’를 서두수가 이해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이 명확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후기’는 번역자가 번역한 것을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번역자와 독자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³⁸⁾

서두에서 말했지만 ‘병사의 노래’는 식민지 시기는 물론 광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번역된 유일한 와카였다. 그런데 서두수의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와 그 이후에 나온 ‘병사의 노래’를 번역한 와카 번역 텍스트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에 ‘후기’를 붙인 것이 사실은 대단히 특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두수 이후의 번역자는 ‘병사의 노래’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후기’ 곧 주석을 아예 붙이지 않거나, ‘후기’다운 후기를 달지 않았다.

그럼 지금부터 서두수 이후에 ‘병사의 노래’를 번역한 번역자가 그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김억의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를 검토해 보자. 「만엽집초역」에는 총 60수의 와카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권20·4337과 4344번 와카가 ‘병사의 노래’였고, 「선역애국백인일수」에는 총 100수의 와카가 우리말로 옮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권20·4328, 4342, 4370, 4373, 4374, 4402번 와카가 ‘병사의 노래’였다. 각각의 와카는 아래와 같다.

37) 박상현 앞의 책. 57쪽

38) ‘주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서양고전철학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인 김재홍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번역했고, 현재 『정치학』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번역’과 ‘주석’에 대해 “정확한 번역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선명하게 밝히며 주석을 다는 행위까지 모두 번역자의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15. 5. 29)

「만엽집초역」 39)

권20·4337

맛브게 찌나노라 父母께 말뭇했네 인제서 생각이건만 後悔莫及이오라40)

권20·4344

넋자고 들을건너 山가고 휘들건만 父母라 고마운님을 니즐길이업서라41)

「선역애국백인일수」 42)

권20·4328

御命을 받자온몸 父母가 그무엇고 다만지 海岸을거쳐 난바다로 갈거나43)

권20·4342

나무로 진집같이 어머니 게웁소서 나이는 잡수시어도 얼굴뵈치 마소서44)

권20·4370

「카시마」 神前에서 武運을 고이빌고 선듯이 戰場나서니 마음튼튼 하오라45)

권20·4373

이賤身 높으신님 방패로 나서노라 이저것 오늘부터야 돌볼줄이 잇으랴46)

권20·4374

칼집에 鋌을꽂아 등에다 들너메고 神明끼 武運빌면서 「즈쿠시」 島 가노라47)

권20·4402

父母님 험한길에 幸여나 일잇을가 神明끼 弊物들이고 一路平安 비노라48)

다음으로 광복 후에 나온 김사엽의 『한역만엽집』, 구정호의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고용환·강용자의 『만엽집 천줄읽기』를 살펴보자.

『한역만엽집』 49)

권14·3567

남겨주고 간다면 입을사 더없이 그리워하겠지, 지니고 갈 가래나무활 줌통이 돼 찢으면 좋겠네50)

39) 박경수 편(1987) 『안서김억전집』 (2-2) 한국문화사. 464-469쪽

40) 水島の たちのいそぎに 父母に ものはづけにて 今ぞ悔しき

41) 忘れむと 野ゆき山ゆき 吾来れど 吾が父母は 忘れせぬかも

42) 박경수 편 위의 책. 494-496쪽

43) 大君の 命かしこみ 磯に觸り 海原渡る 父母を置きて

44) 真木柱 ほめて造れる 殿のごと いませ母刀自 面変りせず

45) 霰降り 鹿島の神を 祈りつゝ 皇御軍に 吾は来にしを

46) 今日よりは かへりみなくて 大君の しこの御楯と 出で立つ吾は

47) 天地の 神を祈りて 幸矢貫き 築紫の島を さして行く吾は

48) ちはやぶる 神の御坂に 幣奉 齋ふいのちは 父母が為

49) 김사엽역(1991) 『한역만엽집』 성감서방. 297-298쪽

ま愛し-「ま」는 接頭語. 弓束-활의 줍통.

권14·3568

뒤남아 그리워하는 것은 괴로워. 아침사냥 가는 그대의 활이 되면 좋을 것
을51)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52)

권20·4321

황공 하옵신 명을 받자 읊고서 내일부터는 풀 껴안고 자야하나 사랑하는 이
없이

권20·4322

내 님이 나를 아주 그리나보다 마시는 물에 님 얼굴 떠올라서 잇을 수가 없
구나

권20·4330

나니와즈서 떠날 채비 갖추어 오늘은 정말 떠나가게 될까나 보는 어머니 없
는데

권20·4371

감굴나무 밑 불어 지나는 바람 향내 피어나는 쓰쿠하 산을 어찌 그리워 앓으
리요

해설 4321-4371 이 와카 이하 4수는 사키모리의 노래다. 당시 변방은 지
금의 규슈로 이곳을 지키던 군인을 사키모리라 불렀다. 주로 동북 지방에
서 차출된 이들은 먼저 오사카 항구에 모여서 배를 타고 규슈로 떠났다.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온 사키모리들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 많은 노래를
읊었다. 이들이 지은 노래는 당시 이들의 수송을 책임졌던 야카모치에 의
해 수집되고, 야카모치는 그들의 노래 중에서 좋은 것들만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 선별된 와카가 제20권에 수록되었다.

『만엽집 천줄읽기』53)

권20·4347

집에서 그리워하지 않고 네가 몸에 붙이고 있는 칼이라도 되어서 그 몸을 지
켜주고 싶구나54)

김억의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 고용환·강용자의 『만엽집 천

50) 置きて行かば 妹ばま愛し 持ちて行く 梓の弓の 弓束にもかも

51) おくれ居て 恋ひば苦しも 朝狩の 君が弓にも ならましものを

52) 구정호(2002)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232-234쪽
단, 와카 원문은 없었음.

53) 고용환·강용자 공역(2009) 『만엽집 천줄읽기』 지만지. 176쪽

54) 伊閑爾之弓 古非都々安良受波 奈我波氣流 多知爾奈里弓母 伊波非弓之加母

줄임기』에는 ‘후기’가 없었다. 김사엽은 『한역만엽집』에서 권14·3567번 와카에 ‘ま愛し-「ま」는 接頭語. 弓束-활의 줍통’이라고 극히 간단한 주(註)를 달 뿐, 이 와카에 대한 해석 곧 ‘석(積)’을 붙이지 않았고, 구정호는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에서 ‘병사의 노래’ 4수를 우리말로 옮긴 후, ‘병사의 노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4수의 각각의 와카에 대한 ‘주석’은 없었다.

물론 이들 와카 번역 텍스트에 ‘후기’ 곧 ‘주석’이 없다고 해서 독자들이 각각의 ‘병사의 노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말 번역문이 있기에 와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사 일본어를 안다고 해도, 우리말 번역문이 있다고 해도 독자가 이들 와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좀 전에 인용했지만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에는 “御命을 받자온몸 父母가 그무엇고 다만지 海岸을거쳐 난바다로 갈거나”(권20·4328), “이賤身 높으신님 방패로 나서노라 이저것 오늘부터야 돌볼줄이 잇으랴”(권20·4373)와 같은 ‘병사의 노래’가 있다. 독자는 번역문을 통해 두 와카에서 병사의 용맹을 느낄 수 있다. 번역문만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들 와카에 ‘후기’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교를 위해 권20·4328번 와카와 4373번 와카를 서두수와 김억이 우리말로 각각 어떻게 옮겼는지 살펴보자. 서두수는 권20·4328번 와카를 “우리聖上 그말삼惶恐코야 기속지나며 바다벌판건너가오 어버이남겨두고”와 같이 번역한 후, 다음과 같은 ‘후기’를 달았다.

(後記)原歌는익히알려진노래이다 『父母を置きて』와 『大君の命かしくみ』는서로어긋나는양보일지나 어긋나는感情이야 짜정眞實이다 그리고이眞實이그들을크게힘있게하고있다 속임업는感情이 속임업는忠誠을가져오는 防人の樣姿를눈앞에그리라⁵⁵⁾

이 ‘후기’를 통해 우리는 해당 와카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유명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권20·4373번 와카를 “오늘이제론 내사도라볼것가 우리聖上の 센방패내가되여 길을내쳐나료니”와 같이 우리말로 옮긴 후,

(後記) 原歌는 널리알리워져잇는노래다 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봄업시씩々하게쳐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個崇嚴한國民性이다

55) 『매일신보』 (1942.11.4)

『出で立つわれは』라고 나가떠나간다고 고함친다 미듬직한사나히여 **겨우열사 람軍卒의長인 今奉部与曾布도** 이러케**感動하다** 임금님의방패-그도御로修飾한방패라고 씌내는忠誠이 与曾布젠있다 그리고이것은 防人全体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룩한精神이다 嚴肅한 崇敬에서 이精神은 비저진것이다⁵⁶⁾

와 같은 ‘후기’를 붙였다. 우리는 이 ‘후기’로 해당 와카가 권20·4328번 와카와 같이 널리 알려진 노래라는 것과 함께, 위 와카를 읊은 이마마쓰리베노요소후(今奉部与曾布)가 10명 정도의 군졸은 지휘하는 분대장 정도의 직위를 가진 자라는 정보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억은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 권20·4328번 와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을 하지 않았고, 권20·4373번 와카에 대해서는 ‘이마마쓰리베노요소후’라는 병사의 이름만 제시했다.

한편 서두수는 권20·4337번 와카를 “떠난다고서 서승서승했더니 어버이님께 하직말삼니것고야 애닦고서러웨라”고 번역한 후,

(後記)水鳥の는똥이어지는枕詞이다 허둥지둥떠나온사나히의진실된마음세가 엇보인다⁵⁷⁾

고 적고 있다. 이 ‘후기’를 통해 독자는 와카 원문에 나와 있는 ‘水鳥’가 번역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마쿠라코토바(枕詞)⁵⁸⁾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권20·4370번 와카를 “내고장되신 가시마神님압페 축원죽수코 聖上의 軍卒되야 내예를왔다오니”라고 읊긴 후, “(後記)『霰降り』는 鹿島の 枕詞 東国男児의 씩々한 意氣”라고 말한다. 이것으로 와카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霰降り’도 마쿠라코토바였고, 그래서 우리말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알게 된다.

반면에 김억은 「만엽집초역」에서는 권20·4337번 와카를 “뻗브게 떠나노라 父母께 말뭏헛네 인제서 생각이건만 後悔莫及이오라”, 그의 「선역애국백인일수」에서는 권20·4370번 와카를 “「카시마」神前에서 武運을 고이빌고 선듯이 戰場나서니 마음튼튼 하오라”와 같이 번역하고, 특별한 주석을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는 전자에서는 부모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근무지로 떠난 것에 대한 병사의 후회를, 후자에서는 병사의 용맹함을 느낄 수 있다. 와카 번역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후기’의 유무(有無)에 따라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크게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우리말로 읊긴 텍스트인

56) 『매일신보』(1942.11.7)

57) 『매일신보』(1942.11.4)

58) 일반적으로 ‘마쿠라코토바’는 번역하지 않는다. 현재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에서 ‘후기’ 곧 ‘주석’을 붙인 것은 다른 번역자들과는 대단히 차별화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서두수는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에 ‘후기’를 붙여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일까?

4.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의 ‘후기’ 내용

앞서 언급했듯이 서두수는 98수의 ‘병사의 노래’ 중 84수에 ‘후기’ 곧 ‘주석’을 달았는데, 우리는 ‘후기’를 통해 서두수가 와카에 생소했던 식민지 조선의 독자에게 무엇을 해설하고 싶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후기’에서 첫째, 와카의 수사법(修辭法) 곧 마쿠라코토바와 조고토바(序詞)에 대해 해설했다. 즉 마쿠라코토바에 대해서는

原歌에草枕라는것은그다음에오는旅를信仰하는 향용別다른뜻을가지지아니한다고일컫려진 『枕詞』(まくらことば)이다마는 이차위 『枕詞』는아직四音或五音으로서그러케만하는것이아니오 그곳에는 어찌한感覺的乃至氣分的關聯을 지니고잇는 것이다(권20·4325)⁵⁹⁾

라고 자세히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권20·4326, 권20·4337, 권20·4338, 권20·4348, 권20·4365, 권20·4370, 권20·4407번 와카에 보이는 마쿠라코토바에 대해 언급했다.

『百代草』란자서치안타 다만다음에오는 『百代』를爲한誘引인상십다 속절없이無窮으로남겼다(권20·4326)⁶⁰⁾

水鳥の는鶯에이어지는枕詞이다. 허둥지둥떠나온사나히의진실된마음세가옛보인다(권20·4337)⁶¹⁾

『多多美氣米』는 자서치안으나 『牟良目』에걸린말이다(권20·4338)⁶²⁾

59) 위의 신문

해당 와카의 우리말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이하, 주88번까지 원문은 “ ”로 표시.
“아버이님네 꽃이사되어주소 나그넷길 그길을제간다데도 바쳐들고가려오”

60) 위의 신문

“아버이님네 게신집뒤들우헨 無窮花피옛고야 無窮無窮계소서 제도라올때까지”

61) 위의 신문

“찌난다고서 서승서승했더니 아버지님께 하직말삼니것고야 애닦고서러워라”

『たらちねの』는 母에부튼枕詞. 처음으로 먼길을떠나는절문의真情『まこと我』라고슬퍼한다(권20·4348)⁶³⁾

『押照るや』는 『難波』의 枕詞(권20·4365)⁶⁴⁾

『霰降り』는 鹿島の 枕詞(권20·4370)⁶⁵⁾

ひなぐもり는 碓氷의 枕詞(권20·4407)⁶⁶⁾

또한 조코토바에 대해서는

흔히는 頭書を 共通히하여 枕詞라는것보담은 길며 또그보담은 다음오는 말과 直接하는關聯이 긴밀치못하면서오히려 다음에나타나는말을 誘來하는 序詞가 『立鴨の』이다. 『発ちの騒ぎ』의序이다(권20·4354)⁶⁷⁾

라고 친절히 설명한 후, 조코토바가 포함되어 있는 권20·4386번, 4430번 와카에 나오는 조코토바에 대해 언급했다.

『五本柳』는 『いつもいつも』를為한序(권20·4386)⁶⁸⁾

첫세句는かなる의序(권20·4430)⁶⁹⁾

둘째, 와카의 형식에 대해 해설했다. 곧 권20·4372번 와카가 총 98수의 ‘병사의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장가(長歌)⁷⁰⁾임을 지적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와카가 모두 단가(短歌)임을 드러냈다.

62) 『매일신보』 (1942.11.5)

“지건너저괴 무라지짜보힌다 월적써러저 그모양어미써러저 내가는길서러위라”

63) 『매일신보』 (1942.11.6)

“폼어기르신 어미써나왔고야 오호내홀로 他関나그네집엘 어이고히잠들소냐”

64) 『매일신보』 (1942.11.7)

“浦口라하니 「나니와」 짜浦口란다 배를꾸며서 어기어차써난다 소식님께伝코저”

65) 위의 신문

“내고장되신 가시마神님압페 축원죽수코 聖上의 軍卒되야 내예를왔다오니”

66) 『매일신보』 (1942.11.10)

“구름자자진 우스히젤사이제 넘어왔더니 내님곰々그리워 니쳐질바업서라”

67) 『매일신보』 (1942.11.6)

“뜨란오리나 썬나라허둥지둥 마조바라던 그네의마음세란 니즐바모를로다”

68) 『매일신보』 (1942.11.9)

“고향門前에 버들다섯섯노니 다시금다시 어마날그리시리 집일살쓸늘보시며”

69) 『매일신보』 (1942.11.12)

“억센丈夫- 화살을손에쥐여 弓습툃하는 喧嘩고히사라진뒤 내써나예왔노라”

70) 와카 형식의 하나로 5음과 7음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7음·7음으로 끝낸다.

『防人作』 으론 오직 하나의 『長歌』 이다(권20·4372)⁷¹⁾

셋째, 해당 와카의 작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와카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권20·4347번 와카에서는 해당 와카가 아버지의 창작이라고, 권20·4387번 와카와 권20·4418번 와카에서는 노래를 읊은 병사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자라고 각각 언급했다.

아버지의노래. 아들을 알뜰히도 생각하는眞情막을바업다(권20·4347)⁷²⁾

約婚한녀를두고은사나히노래(권20·4387)⁷³⁾

想必議婚는되엇스나結婚은채못한邊防직이의걱정일 것이다(권20·4418)⁷⁴⁾

넷째, 해당 와카가 특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설했다. 권20·4328번과 권20·4373번 와카가 여기에 속한다.

原歌는익히알려진노래이다 『父母を置きて』 와 『大君の命かしこみ』 는서로어긋나는양보일지나 어긋나는이感情이야 짜정眞實이다 그리고이眞實이그들을크게 힘있게하고있다 속임없는眞情이 속임없는忠誠을가져오는 防人の樣姿를눈앞에 그리라(권20·4328)⁷⁵⁾

原歌는 널리알리워져 잇는노래다. 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몸업시 썩々하게찌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⁷⁶⁾崇嚴한國民性이다. 『出で立つ吾は』 라고 내가 찌나간다고 고함친다. 미듬직한사나히여 겨우 열사람軍卒의長인 今奉部与曾布도 이리케感動하다 임금님의방패-그도御로修飾한방패라고 뽑내는忠誠이 与曾布진있다. 그리고이것은 防人全体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극한精神이다. 嚴肅한 崇敬에서 이精神은 비져진 것이다(권20·

71) 『매일신보』 (1942.11.7)

“아시가라山고깬 휘도라넘어도라몸업이 나는 고깬넘어가오 怯모른丈夫도 서슴는다란후 하고 깬씩넘어 나는가오 나넘어가오 츠쿠시짜라그츠쿠시쌀 정녕富倒하올제 축원축수하려오 내고향 내집기리다름업어라 내도라갈째까지”

72) 『매일신보』 (1942.11.6)

“집에남으니 생각하고그리워 네허리씩인 그長劍내가되야 네몸祝手코제라”

73) 『매일신보』 (1942.11.9)

“치바를 어린側柏씩트듯 내님봉긋어여썬 잘잇스라축원코 오호내에왔도다”

74) 『매일신보』 (1942.11.11)

“내집門前엿 이기슭冬柏앗아 정녕일러라 내널씩기前이란 짜해지질안호런지”

75) 『매일신보』 (1942.11.4)

“우리聖上 그말삼惶恐코야 기슴지나며 바다별관건너가오 어버이남겨두고”

76) 해독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기호임.

4373)⁷⁷⁾

다섯째, 해당 와카와 다른 와카와의 관련성에 대해 해설했다. 권20의 4324번, 4376번, 4377번, 4416번, 4424번 와카와 권14의 3568번 와카에 그런 언급이 보인다.

急作히 邊防직이로불려와 길써나렬제 안혜사는저편하날을바라면서속마음을 거것업시노래한것이다. **비슷한노래에 四三六四, 四三三七, 四三七六, 四三八九等이있다**(권20·4324)⁷⁸⁾

四三三七과類似하다. 父母를母父라함도慈味잇는痕迹이다(권20·4376)⁷⁹⁾

四三二五와함께父母에처한 티끌업는 精神의表現이다(권20·4377)⁸⁰⁾

四四一五에처한答歌이다(권20·4416)⁸¹⁾

四四二三에처한答歌이다(권20·4424)⁸²⁾

이두首(권14의 3567과 3568을 가리킴. 인용자)는問答이다. 그러나 女人의노래는 蕙心感情이欠乏된것갓다(권14·3568)⁸³⁾

여섯째, 당시의 문화에 대해 해설했다. 권20의 4322번과 4427번 와카에 속신(俗信)⁸⁴⁾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옛사람생각에는 저편이 이쪽을그릴젠 이편에通해진다녀여졌다. 他関에와서 이제저제그리는안해의모습을 한목음목을축이런셈속에 속절업시보고마르다(권20·4322)⁸⁵⁾

77) 『매일신보』 (1942.11.7)

“오늘이제론 내사도라볼것가 우리聖上の 센방패내가되어 길을내쳐나료니”

78) 『매일신보』 (1942.11.4)

“도호도호이 시르하이기습이 니혜저갓가에란 이어저다엇더면 말이나바우렛만”

79) 『매일신보』 (1942.11.8)

“나그넷길써나올줄 전혀몰라 어마아바께 하직말삼채못해 이제토록서러워”

80) 위의 신문

“우리어머님 구슬이나되어지고 머리위언저 구슬할째이머리 싸허를보고저라”

81) 『매일신보』 (1942.11.11)

“他関나그네 길써나신郎君 홀로잠드시든 獨守空房이내몸 띄끌블줄잇스라”

82) 위의 신문

“색시란지네 내郎君입으실옷 물드려돌것 개고개도르실제 이눈환보오리”

83) 『매일신보』 (1942.11.12)

“뒤남어있서 그린단괴롭도다 산양가시며 넘지니신활이나 이몸되고저웨라”

84) 민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종교적인 관행, 풍습, 주술, 점(占) 등.

님이날그리면 옷끈이 푸러진다는俗信이잇었나보다(권20·4427)⁸⁶⁾

또한 당시의 언어문화 및 신(神)에 대해 해설한 것으로는 권20·4329번과 4350번 와카가 있다.

八를이은數는 만음을 意味한다. 이곳저곳서모여든절문이들의배져나려는날의 것거움을 明朗하게노래지었다 지금大阪근방이 難波라불리운곳이며 여기서 瀬戸内海를運航한것갓다(권20·4329)⁸⁷⁾

「阿須波の神」는아마 旅行의神이리라 異說은있다 아마 邊防직이의父母의 노래리라(권20·4350)⁸⁸⁾

결국 서두수는 ‘병사의 노래’에서 ‘후기’ 곧 ‘주석’을 통해 당시 와카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의 독자가 해당 와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 해설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독자는 서두수의 ‘후기’를 참조하면서 해당 와카뿐만이 아니라 고대일본의 문화도 더불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⁸⁹⁾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병사의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한 와카 번역 텍스트를 통사적으로 살펴왔다. 식민지 시기에 ‘병사의 노래’를 소개한 와카 번역텍스트로는 서두수의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 김억의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가 있었고, 광복 이후에 나온 것으로는 김사엽의 『한역만엽집』, 구정호의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고용환·강용자의 『만엽집 천줄읽기』가 있었다. 이들 와카 번역 텍스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두수의 「防人歌

85) 『매일신보』 (1942.11.3)
 “내지어미야 알뜰히그린양티 마시련샘에 그림자어른대여 니즐곳모를레라”
 86) 『매일신보』 (1942.11.12)
 “고향지어미 날생각는양하다 짜정 여미게 매인옷끈 푸러짐볼작시면”
 87) 『매일신보』 (1942.11.4)
 “즈른고장서 나니와모여드러 배우미누나 배우민단그날을란 보아줄이잇서라”
 88) 『매일신보』 (1942.11.6)
 “뜰가온데라 아스하神외신壇 가지꼬져서 祝願코祝手하리 네도라올때까지”
 89) 서두수가 다른 번역자와 달리 ‘병사의 노래’에 ‘후기’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성제대에서 근대적인 문학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글이 참고가 된다.
 박상현(2012) 위의 논문(「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만엽집』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 133-138쪽

(사씨모리노우다)」가 갖고 있는 와카 번역사적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서두수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는 ‘병사의 노래’를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것이었다.

둘째, 서두수의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는 ‘병사의 노래’를 완역(完訳)한 와카 번역 텍스트였다. 물론 ‘병사의 노래’에 권7·1265번 와카와 권13·3344-45번 와카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는 이들 와카를 우리말로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완역했다는 문학사적 평가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와카는 ‘병사의 노래’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⁹⁰⁾

셋째,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는 근대 이후 와카 번역사에서 ‘병사의 노래’에 최초로 ‘후기’ 곧 주석(註釈)이 달린 텍스트였다. 달리 말하면 서두수는 ‘후기’를 통해 그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기를 바랐는지를 드러냈다.⁹¹⁾

90) 해당 와카는 다음과 같다. 권7·1265번 와카에 ‘島守(しまり)’가 나온다. 이것을 ‘防人(さきもり)’라고 해석하면 이 와카도 ‘병사의 노래(防人歌)’가 될 수 있다. 또한 권13·3344-45번 와카의 후반부(강조 표시 참조)에 ‘어떤 사람에게 따르면 이 단가(권13·3345번 와카를 가리킴. 인용자)는 병사(防人)의 아내가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가(長歌)도 같은 시기의 작품일 것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로써 이들 작품이 ‘병사의 노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따르면’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와카는 권20에 수록되어 있는 ‘병사의 노래’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들 와카를 ‘병사의 노래’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권7·1265

今年行く 新島守が 麻衣 肩のまよひは 誰か取り見む

권13·3344-45

この月は 君来まきむと 大船の 思ひ頼みて いつしかと 我が待ち居れば もみち葉の 過ぎて 去にきと 玉梓の 使ひの言へば 蛭なす ほのかに聞きて 大地を 炎と踏みて 立ちて居て 行くへも知らず 朝霧の 思ひ迷ひて 丈足らず 八尺の嘆き 嘆けども 験をなみと いつづにか 君がまきむと 天雲の 行きのまにまに 射ゆ鹿の 行きも死なむと 思へども 道の知らねば ひとり居て 君に恋ふるに 音のみに泣かゆ

反歌

권13·3345

葦辺行く 雁の翼を 見るごとに 君が帯ばしし 投矢し思ほゆ

右の二首、ただし、或るひと云はく、この短歌は防人が妻の作る所なり、といふ。しからばすなはち、長歌もまたこれと同作なることを知るべし。

91) 다만 그의 ‘후기’에는 그의 독창적인 해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주로 당시 내지인 일본에서 유통되던 주석서를 충실히 참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일본 학계의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서두수는 예를 들어 서두수가 마쿠라코도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곧 “原歌에草枕라는 것은그다음에오는旅를信仰하는 항용別다른뜻을가지지아니한다고일컫려진『枕詞』”를 서술한 후, “그곳(마쿠라코도바를 가리킴. 인용자)에는 어찌한感覺的乃至氣分の關聯을지니고있는 것이다”와 같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국문논저>

- 고용환·강용자(2009) 『만엽집 천줄읽기』 지만지. 176쪽
구정호(2002) 『만요슈:고대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232-234쪽
김사업 역(1991) 『한역만엽집』 성갑서방. 297-298쪽
박경수 편(1987) 『안서김억전집』 (2-2) 한국문화사. 464-469쪽
박상현(2009) 『해석의 정치학』 제이앤씨. 16쪽
_____ (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 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31-232쪽
_____ (2012) 「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 『만엽집』 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문화학보』 제5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55-271쪽
_____ (2012)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의 정체성 연구-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관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133-138쪽
서두수(1942) 「防人のころ：名作研究」 『国民文学』 인문사. 50쪽

<신문>

- 『매일신보』 (1942.11.2-12)
『한겨레신문』 (2015.5.29)

<일문논문 >

- 益田勝実(1952) 「防人等」 『万葉』, 万葉学会. 39頁
身崎寿(1973) 「防人歌試論」 『万葉』, 万葉学会. 22頁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게재확정일 : 2015.10. 3